

나무 한그루에 포도 2200송이 재배 고창 도덕 현 씨



“포도 3000송이 열릴 때까지 계속 연구할 겁니다”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3000 송이 넘게 열릴 때까지 계속 재배법을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가면 포도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일반 포도농장과 달리 6600㎡ 넓이의 농장에 단 40그루의 포도나무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곳 포도나무는 유럽산 야생 포도 나무에 머루 포도를 접붙인 것으로 한 그루에 1000~2000 송이의 포도가 열린다. 올해 가장 많이 열린 나무에는 2200 송이의 포도가 열렸다.

국내 최고기록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주인공은 도덕현(54)씨. 도씨는 2005년 일본에 한 그루에 3000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배법을 연구해 왔다.

도씨는 “포도나무에 30~4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에 특이한 포도 재배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9년째 연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법은 ‘탄소순환농법’이라는 친환경적인 재배법에 있다.

그는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당도를 높이려고 가지치기를 하거나 인공적인 비료, 퇴비 등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가지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키운다”고 설명했다.



이런 재배법을 사용하면 한 나무에 많은 포도가 열려 당도가 낮을 것 같지만, 도씨의 포도는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높다.

이렇게 재배한 포도는 일반 포도보다 두 배 비싼 1kg당 1만원에 팔려나간다.

최종목표는 한 그루에 3000 송이의 포도를 맺어 세계기록에 등재하고 탄소순환농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는 “매년 200~300 송이의 포도가 더 열리고 있어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 3~4년 정도 더 노력해 3000 송이가 열리면 기네스북에 등재할 생각”이라며 “몇몇 분들이 재배법을 배워가서 1000 송이가 넘는 포도를 맺고 있다. 앞으로 후계자 양성에 더 힘써서 이 재배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무게 24.5kg '거대 수박' 박동호 씨



“친환경으로 재배해 더욱 뿌듯”

마을에서 수박을 생산 중인 그는 달고나 품종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수박을 발견했다.

거대수박은 3960㎡(1200평) 비닐 하우스에서 다섯 통이 발견돼 농가는 물론 수박 전문가들도 놀라워 하고 있다.

박동호 씨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귀농해 수박과 복분자 등 원예특작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농가로 모든 농산물을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청통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



전북 고창에서 '거대 수박'이 생산됐다.

무게가 24.5kg, 둘레는 105cm에 달한다.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된 이 수박은 성인이 들기에도 힘들 정도로 크고 무겁다.

특별한 수박을 생산한 주인공은 박동호 씨. 고창군 대신면 연동리 청통

보호전문기관.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상 제12회 동창(회장 정성수) 모임=15일(목) 낮 12시 유명회관(금남로 5가 교보빌딩 건너편) 062-512-5574.

종친회

▲(사)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20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사)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희희)=22일(목)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안내=BEAUTIFUL 문제 없이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 일시는 20일·27일, 장소는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남구 미래아동병원 옆)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062-413-1195, 062-412-1464(담당자 김형우)

▲(주)엘에이엠(에스엔젤)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시원한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공유=16일(금) 오후 4시 북구 신안동 132-8번지 062-432-8959, 010-9214-268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인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장애인 무료 야구관람단=광주 거주 장애인으로서 27일, 28일(2일 선택)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관람단

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 = '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무관·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010-3625-5433.

모집

▲'학습동기향상 및 시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20일·22일·27일·29일(오전 10시~11시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10명062-268-1388.

▲소통·방통 유쾌한 가족을 위한 영화치료·토일렛 참가자=28일(수)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녀 또는 학부모 062-268-1388.

▲장애인 무료 야구관람단=광주 거주 장애인으로서 27일, 28일(2일 선택)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관람단

모집, 접수기간은 22일(목) 오전 12시 선착순 100명 마감, 접수처 '장애이민자' 실천광주운동본부 062-511-0030(전화접수, 석식·간식 제공)

▲밀알중앙회 영신강령경대대학 명예 환경감시원 양성과정 수강생=접수일 9월 3일(화)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대상은 영신강원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장소는 밀알회관 4층(북구 금남로 104) 062-526-0314, 010-2635-1080.

▲바이오밀(유신균·효소) 두암예방, 소화가 잘된, 아로미, 변비, 아기를 이유식, 건강, 아로미, 변비, 관절, 대사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탭댄스·바른춤 등 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만 수시모집) 062-269-6669, 010-3606-0230.

80년 전 독일신문에 실린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대 김재기 교수 獨 현저서 찾아...A4 4장 분량

일제 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독일 현저에 소개한 80여년 전 신문 기사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가 최근 발견한 화제의 신문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현저 최대 언론사 가운데 하나였던 포시제 자이퉁(Vossische Zeitung)이다.

이 신문은 1704년에 창간해 200여년 동안 독일을 대표하던 언론사로 일제 강점기 경성에서 주재했던 리처드 카츠(Richard Kats)기자가 1930년 2월 23일자 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사를 5면에 A4 4장 분량으로 실었다.

“천황폐하 만세(Bansai) 대신 대한독립 만세(Mansai)를 외치다 투옥된 수천명의 조선학생에게”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독일인의 시각에서 조선학생들의 만세운동 배경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압적 통치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자는 1929년 11월 광주(Koshu)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수 주일째 계속되고 있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체포됐으며 그들 대부분이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또 학생들의 만세독립운동 배경으로 일본이 황민화 교육을 위해 조선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하는 과정



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들과의 차별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3·1운동 이후 군사력을 동원한 억압적인 일본의 통치 방법도 한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본은 '동양의 프로이센'으로 비유하며 프랑스 영

토 알사사(Elsa B)를 감압적으로 통합하고 억압했던 점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해외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언론 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김 교수가 1년 동안 추적 끝에 발굴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글로벌 대학 꿈 실현하겠다”

김동욱 동강대학 총장 취임

“특성화전문대학 선정과 취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동강대학이 명실상부한 지방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61·사진) 동강대학 제13대 총장이 지난 13일 대학본부에서 취임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 신뢰의 바탕 위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열린 경영으로 동강대학이 세계 속의 글로벌대학으로 우뚝 서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졸업생 취업문제 등 대학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중앙부처의 많은 경험을 살려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대학

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가장 먼저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체의 시각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맞춤형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학협력 활동과 상시적 진로·취업 상담 등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장흥에서 태어난 김 총장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문학석사, 아이오와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간이다. /채희종기자 chae@



“담양은 제2의 고향”

신흥 비독스타 김지석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

한국 바둑의 선두주자인 김지석 9단이 지난 11일 부인과 함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담양군 대전면 서육리 오산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 3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담양 사랑을 과시했다. <사진>



국내외 대회를 치르느라 바쁜 일정 중에도 김선수는 대전면 한재골의 한 식당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함께 아버지께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후 담양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바둑 애호가들로 구성된 '대전기우회' 회원들과 다들기 바둑 특별대국의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다.

김지석 9단과의 담양 인연은 전남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에 재직 중인 아버지 김호성 교수가 원 고향인 부산을 떠나 대전면 불태산 자락 오산마을에 10년 전에 이사, 제2의 고향이 된 담양에 터를 잡은 것이 계기가 됐다. 김지석 9단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바둑리그 한계점 주장으로 7연승을 달성해 한국바둑계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대회 본선 32강과 10월에 있을 제15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 최강전 출전을 준비 중이다. 김 선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우승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한빛복지협회 현애농원, 오늘 옥명수 여자 추모제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현애농원(회장 이길용)이 주관하는 옥명수 여자 추모제가 15일 오전 11시30분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현애농원 추모비 앞 광장에서 열린다.

추모비는 한센인들이 지난 1974년 8월15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옥명수 여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75년 3월 건립됐다. 옥 여사는 지난 1966년과 1971년 현애농원을 찾아 발전기금과 의류 등을 전달하며 한센인의 손을

잡아주고 희망을 복돋아 줬다. 한센인들은 당시 페스트레티드 신 분으로 한센인 마을을 두 차례나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뜻을 기억하며 추모제를 열고 있다.

추모제는 한센복지연합회 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사의 행적을 되새기며 한빛복지협회 기금성 고문과 경과보고와 이길용 회장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기자협회 창립 49주년 기념식

한국기자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신재운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김병 청와대 대

변인,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참석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언론의 역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해 불의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거규정의 임기 부분을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 가능'으로 수정했다. /양세열기자 hot@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김동원 (남/59세) 子: 김대환 女: 김민희/김성석 *호실: 2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최혜실 님 (여/56세) 子: 최낙훈/낙준 女: 최혜경/혜영/혜숙 *호실: 4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김민수 (남/27세) 夫: 김종환 弟: 김성수 *호실: 402호 *장지: 영락공원	故 박종팔 님 (남/77세) 子/子婦: 박성규/김혜숙/명규/이미래, 정구/최정자 女: 박정자/김동진/성자/양종철/명자/곽재수 長子/정철권/최자/최민수 *호실: 102호 *장지: 담양 천주교묘지

*발인: 8월16일
 *연락처: 227-4381
 *발인: 8월15일
 *연락처: 227-4383
 *발인: 8월16일
 *연락처: 227-4314

마유까지 편안함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